

30년째 직접 구운 빵 나눔...“이웃에 힘되길”

목포 백제당 제과점 김승태·안오순 부부

어린시절 굶주림·외로움 등이 원동력
목포제일정보중·고 만학도 배움 열정
3년째 학교 연계 장애인에 빵 제공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빵 굽고 나누고파”



목포 동부시장에서 '백제당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승태(오른쪽)씨와 아내 안오순씨는 30여년간 직접 구운 빵을 소외 이들에게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제공>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지독한 굶주림과 외로움을 겪어왔기에 배고픈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목포 지역 한 만학도 부부가 가난과 투병 등 슬픈 역경 속에서도 30여년간 직접 구운 빵을 소외 이들에게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재단법인 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62)씨와 아내 안오순(65)씨 부부는 지난 9월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목포중증장애인협회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정성껏 만든 팔짱빵과 옥수수빵 1천여개를 제공했다.

목포 동부시장에서 '백제당 제과점'을 운영해 온 김씨 부부의 나눔은 올해로 3년째 학교 연계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지원금 50만원에 김씨가 60여만원과 제빵 기술을 보태며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씨 부부의 선행은 아주 오래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물론 공공기관을 찾아 꾸준히 빵을 나누

며 묵묵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세월이 벌써 30(여년에 이른다.

이 같은 지속적인 나눔의 이면에는 김씨의 빼어난 인생사가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굶주림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18세에 목포에 와 어망 제작 기술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아내 안씨를 만나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그는 노점상 등을 거쳐 1997년 백제당 제과점을 인수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혹독한 시련과 마주했다.

이후 부부는 과감한 가격 인하와 성실함으로 위기를 돌파해 지역에서 사랑받는 제과점으로 일어섰다.

2015년께 아내 안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큰 고비도 있었지만, 당시 김씨는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묵묵한 봉사를 실천하기도 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씨와 함께 김씨는 현재 생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과 시설을 갖춘 별도의 공간에서 오직 나눔을 위한 빵을 굽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또한 못다 한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부부가 나란히 학교에 진학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다.

김승태씨는 19일 “어린 시절 뼈저리게 겪었던 고단함이 나눔의 원동력이 됐다”며 “나눔을 위해 최근 짬방 기계도 새로 장만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내와 함께 빵을 구워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 안씨를 만나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그는 노점상 등을 거쳐 1997년 백제당 제과점을 인수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혹독한 시련과 마주했다.

이후 부부는 과감한 가격 인하와 성실함으로 위기를 돌파해 지역에서 사랑받는 제과점으로 일어섰다.

2015년께 아내 안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큰 고비도 있었지만, 당시 김씨는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묵묵한 봉사를 실천하기도 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씨와 함께 김씨는 현재 생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과 시설을 갖춘 별도의 공간에서 오직 나눔을 위한 빵을 굽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또한 못다 한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부부가 나란히 학교에 진학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다.

김승태씨는 19일 “어린 시절 뼈저리게 겪었던 고단함이 나눔의 원동력이 됐다”며 “나눔을 위해 최근 짬방 기계도 새로 장만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내와 함께 빵을 구워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 안씨를 만나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그는 노점상 등을 거쳐 1997년 백제당 제과점을 인수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혹독한 시련과 마주했다.

이후 부부는 과감한 가격 인하와 성실함으로 위기를 돌파해 지역에서 사랑받는 제과점으로 일어섰다.

2015년께 아내 안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큰 고비도 있었지만, 당시 김씨는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묵묵한 봉사를 실천하기도 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씨와 함께 김씨는 현재 생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과 시설을 갖춘 별도의 공간에서 오직 나눔을 위한 빵을 굽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또한 못다 한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부부가 나란히 학교에 진학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다.

김승태씨는 19일 “어린 시절 뼈저리게 겪었던 고단함이 나눔의 원동력이 됐다”며 “나눔을 위해 최근 짬방 기계도 새로 장만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내와 함께 빵을 구워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 안씨를 만나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그는 노점상 등을 거쳐 1997년 백제당 제과점을 인수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혹독한 시련과 마주했다.

이후 부부는 과감한 가격 인하와 성실함으로 위기를 돌파해 지역에서 사랑받는 제과점으로 일어섰다.

2015년께 아내 안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큰 고비도 있었지만, 당시 김씨는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며 병원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는 묵묵한 봉사를 실천하기도 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씨와 함께 김씨는 현재 생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과 시설을 갖춘 별도의 공간에서 오직 나눔을 위한 빵을 굽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또한 못다 한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부부가 나란히 학교에 진학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다.

김영민 35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취임



김영민(사진) 제35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17일 취임했다.

서울시립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김 신임 청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대기환경정책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탈탄소 녹색대 전환, 지역민이 공감하는 환경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구현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공감형 환경복지 확대 등을 목표로 삼았다.

김영민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무공해차 보급, 탄소흡수원 발굴 등 에너지 위기에도 튼튼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여대-동일미래과학고 업무협약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와 자·산·학 연계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교-대학-지역사회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AX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교재 개발 ▲취업 연계형 기술 지도·신기술 특강 운영 ▲진로·멘토링 및 심리상담 지원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정보 공유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여대는 MAUM(마음) 교육 선도대학 비전을 바탕으로 AI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

경찰청 ◇경무관 전보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중

한전KDN ◇상임이사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 박경수 ▲전력ICT본부장 최진수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지부 2026년도 정기총회=28일(화) 오후 6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2층, 문의 010-2115-0945.

결혼

▲권영일·최미주씨 아들 오현군, 김준수(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박미경씨 딸 다솜양=26일(일) 오후 2시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서울 강남구 학동로47길 5), 010-5256-5250.

부음

▲송동진씨 별세, 송창영(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창철·혜영·지원씨 부친상=발인 21일(화) 오전 8시30분 광주 VIP장터타운 VVIP 101호실. ▲박공식(뉴스핌 선임기자·전 무등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황미희씨 남편상, 박창현·예슬씨 부친상=발인 21일(화) 오전 8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031-900-0444). ▲이민숙씨 별세, 이재원(광주MBC 기자)씨 누나상=발인 20일(월) 오전 11시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예궁실(062-250-4455). ▲전성순씨 별세, 정인철(KIA 타이거즈 전력기획 프로)씨 외조모상=발인 20일(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02-3010-2000).



동구농아인센터, 장애인의 날 맞아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동구농아인센터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성금 3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센터 이용인들과 임직원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할 만가 조성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지혜 동구농아인센터 대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 창평면-완도 청산면,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 창평면은 “최근 완도 청산면사무소에서 청산면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역은 상호 기부를 시작으로 각 지역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창평 전통음식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교차 홍보에도 나선다. 더불어 특산물 담례품 연계 마케팅 등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경관 청산면장은 “창평면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청산의 바다와 창평의 전통이 어



우러린 최고의 슬로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창평면장은 “공통의 가치를 지닌 두 지역이 인연을 맺게 돼 뜻깊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광주노동청 ‘Safety Link 릴레이 캠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서구 상무조각공원에서 건설사 관계자 등 60여명과 “2026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Safety Link 릴레이 캠페인” 발대식과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위험은 없고, 안전은 있고”를 슬로건으로 대형 건설현장이 참여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 아파트 건설현장 등 18곳을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현장별 2주간 안전 활동을 이어가는 ‘릴레이’ 형식이다. 각 현장은 추락·충돌·화재 등 위험요인을 주제로 결의대회, 안전 점검,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진행한다.

노동청은 캠페인 기간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발대식과 함께 거행된 안전기원제에서는 참



석자들이 무재해 달성을 기원하며 현장 안전수칙 준수 의지를 다졌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완도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일손 돕기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는 “최근 완도군 고금면 일원에서 관내 농·축협 임직원과 농가주부 모임,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대식은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

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수수 재배 농가를 찾아 파종 작업을 지원했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병행해 농경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일제히 수거하며 마을 환경 정화에도 힘을 보탰다.

최대군 지부장은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농가 일손 돕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부세 품종 연구’ 최우수상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국립수산물학원의 ‘2025년 연구·기술보급 사업 최종평가 발표회’에서 고수온 대응 부세 신품종 개발 성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부세 신품종 양성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다. 부세는 30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품종이다.

특히 kg당(3마리 내외) 약 1만5천~1만7천원 수준의 시장가격을 형성,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전라품종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세의 고수온 대응 대체 품종 활용 가능성을 제시, 현장 중심 연구 성과와 기술보급 성과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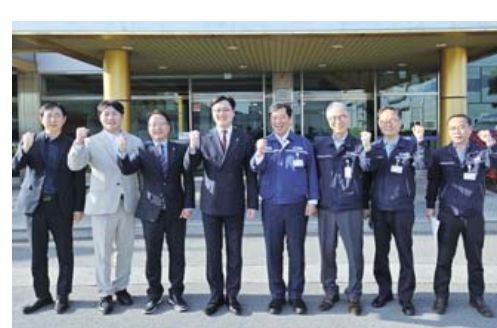
광주대-디케이(주) ‘AX 실증 활성화’ 협약

광주대와 디케이(주)가 광주·전남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9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디케이 본사에서 김동진 총장과 김보곤 회장, 노선식 산학협력단장, 백경운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기업 AI 도입 및 AI 솔루션 실증 지원 ▲취업 연계 및 재직자 AI 역량 강화 ▲AX 실증연구소 설립·운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보곤 회장은 “광주대와 협력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진 총장은 “지역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